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헌법이 보장”

김승환 교육감, “정치적 중립성 조항 공무원 정치적 행위 제한 아닌 권력자 향한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 교원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의사표현이 있다. 그것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 헌법의 정

신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지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이 공무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용하는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공무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력자를 향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데 동의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근 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다양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집단행위를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은

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연가 사용시 사유 미기재 원칙은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사학비리 제보 교사 고소 취하하라” 25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연대) 등은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제보 교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대 LINC+사업단 가족회사 특화 분야 육성 ‘앞장’

산학연계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9개 업체 최종 선정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단장 고영호·이하 LINC+사업단)이 가족회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산학연계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우수한 아이템 및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여러 제반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1단계 산업자문부터 2단계 R&D 협력, 3단계 시제품 제작지원까지 특화분야 및 융·복합 기술개발 환류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특히 특화분야 및 융·복합 관련기술 선형기술조사 지원사업과 특허 출원·등록 지원사업도 시행 약 2억 원의 예산 지원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단은 24일 산학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업체 선정을 위한 발표 평가회를 갖고 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제품제작 지원으로 개발되는 대표적인 특화분야 제품으로는 (주)케프 다키는 포터블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 융합 분야)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응용해 개발한 (주)한불화농의 전북지역 특산물인 오디를 활용한 천연향료 향미소재 개발, 레릭의 지역 문화재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3D입체 실사 모형 제품 제작 (전통문화 분야) 등이다.

고영호 단장은 “산학연계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대학과 가족회사가 상생하는 기반이 되고 전북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학생 참여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인재 육성에서 앞장사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등 거점국립대 공동 입시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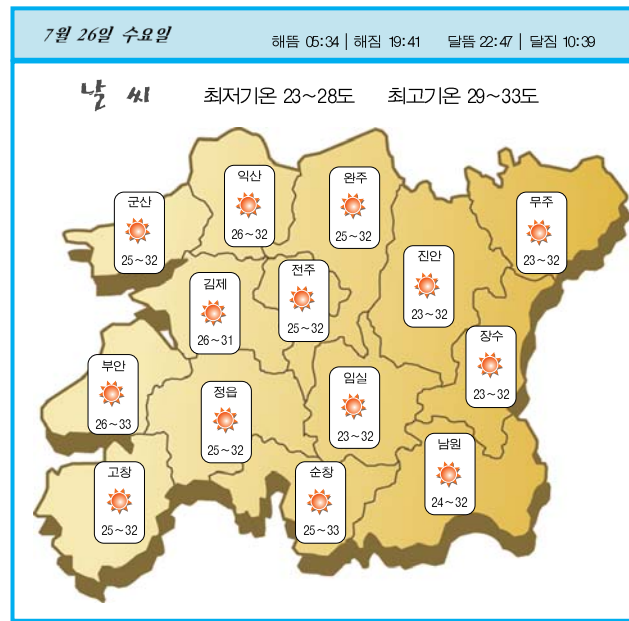
전북대학교가 25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교 공동 입시설명회에 참여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처음으로 전국 9개 거점국립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점국립대 간 첫 협력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설명회가 진행된 부산대에서는 전북대를 비롯 참가 대학별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내용과 경쟁력 있는 학과 정보를 안내했다.

한편 전북대 등 거점국립대 학생들은 내달 28일에도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및 서울광장에서 공동 대입전형 설명회를 또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JB우리캐피탈, 전주시 자주재원 확충 ‘기어’

전주에 본점을 둔 JB우리캐피탈(이 최근 4년동안 200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전주시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JB우리캐피탈은 2013년 3월 대구에서 전주로 본사를 이전한데 이어 11월 전주시와 리스 자동차 사용부까지 이전 MOU 협약을 체결 이후 세금 납부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본사를 이전한 2013년도 자동차세가 7억원이었고, 2014년 31억, 2015년 48억, 지난해 61억 올해의 경우 70억원이 예상되는 등 2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났다.

JB우리캐피탈(주)은 자동차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주시에 회사 소유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1만1,942대로 매년 1,500여대

씩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지방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JB우리캐피탈 조진우 오로전무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본사 소재지인 전주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가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세계 속의 전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이 되어준 데에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0일 재정확충에 감사를 표하며 JB우리캐피탈(주)과 소속 직원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자봉센터, 청소년자원봉사일일학당 교육

다음달 9일까지 주 3회 진행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5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자원봉사일일학당’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자원봉사일일학당은 방학 기간 동안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기초교육과 함께 청소년 진로 스포츠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다음달 9일까지 주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약물남용의 올바른 이해, 어르신에 대한 이해 및 체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만들기 체험교육, 경제교육, 과학체험교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베품체험 등 지역 내 9개 기관단체와 연계해 총 14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의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평소 학업 등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 참여 영역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이번 교육처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